

# 대학 봉사도 글로벌 시대... 한국어 교육서 의료·보건 까지

### 태권도·K팝 공연 등 문화교류도 전공학문연계 프로그램 등 활발 현지 주민들 의료활동 봉사 실시

지금 대학가는 해외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봉사활동과는 다른 대학생들의 전공과 아이디어를 살리는 봉사활동 프로젝트들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태권도와 K-팝 공연 등 문화 교류를 통한 '제2의 한류 열풍'도 기대된다.

전공과 연계한 해외 봉사활동은 명지대의 '전공학문연계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명지대는 오는 29일까지 인문캠퍼스와 자연캠퍼스별로 라오스, 네팔, 캄보디아 등 3개국에 84명의 학생들을 각각 파견해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에 나선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있는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영어 교육을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교사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에도 참여한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이 참여한 적정기술을 통해 현지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해외봉사단을 꾸렸다. 서울대는 베트남 남딘을 시작으로 필리핀과 인



라오스 방비엡 소재 위엡쌌마이 초등학교 학생이 서울시립대 학생들로부터 한국어 교육을 받고 한글을 써보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네시아로 학생들을 파견했다. 학생들은 오는 20일까지 유치원생 교육과 의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인다.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남딘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학생들이 파견되고 있다. 올해는 교육과 의료, 문화 등 세 가지 키워드로 봉사활동을 벌인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현지 시골 마을의 유치원생들 위한 교육은 물론, 의료 서비스 여건이 열악한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활동도 실시한다.

필리핀에서는 화전농업과 단일경작으로 파괴된 열대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한



KAIST 학생들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봉사활동을 위한 출국에 앞서 봉사단 선서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현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실험 교육 등을 벌인다. /KAIST

혼농임업 조성 등 환경과 생태 보호를 주제로 한 봉사활동을 필리핀 국립대 로스바노스 캠퍼스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란자블랑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한 교육과 학교 건물 보수 공사에 참여한다.

한성대는 오는 26일까지 2주간 태국 우따라딕 왕립대학 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한국어를 비롯해 미술, 과학, 체육, 음악, 무용 등 학생들의 전공과 연계된 교육과 한국문화 알리기 등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봉사단 팀장을 맡은 이 학교 정보시스템학과 4학년 고민수 씨는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총 115명으로 구성된 이화봉사단을 국내외 해외로 나눠 파견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외 봉사단의 경우 베트남 다낭 희망마을 고아원을 방문해 현지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벽화그리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의예과 학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과 지도교수 등으로 구성된 팀은 오는 19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화빈성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치료와 보건사업을 펼친다.

KAIST 학생들은 캄보디아와 인도네

시아를 방문해 각각 호산나고등학교와 산포루카스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과학 실험 교육과 아두이노 교육 등을 벌인다. KAIST 박오욱 교학부총장은 "KAIST의 사회적 책임과 진정한 사회공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며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건강히 봉사활동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는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은 첫 기념사업으로 해외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지난 5일 라오스로 출발해 오는 19일까지 2주간 수도 베엔티안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방비엡 지역의 위엡쌌마이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태권도, 보건, 미술, 과학 등 교육을 벌이고 학교 시설 개보수 작업에도 동참한다. 학생들은 이번 봉사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매주 1~3회씩 모여 현지에서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중앙대는 오는 16일까지 베트남 광양아성에서 두산중공업의 현지법인 두산비나와 함께 봉사활동에 나선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이번 봉사활동에서 학생들은 지역 소재 3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이접기, 클레이 공예, 페인팅 등의 교육을 벌이고 태권도와 K-팝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이직할까...” 직장인 대다수 ‘커리어 사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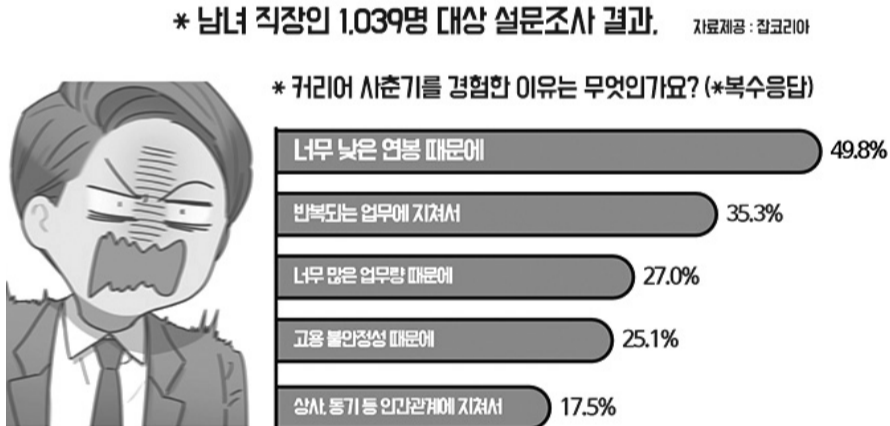
잡코리아 직장인 1039명 설문조사

직장인 대다수가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이른바 '커리어 사춘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 사춘기를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과 반복되는 업무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 10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8%가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지, 혹은 다른 회사로 이직할지 등을 고민하는 커리어 사춘기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커리어 사춘기를 겪은 시기는 근무 3년차(34.6%), 근무 1년차(22.9%), 근무 2년차(18.7%) 순이었다. 특히 커리어 사춘기를 겪었다는 답변은 근무 1년차~근무 3년차(3개 답변의 합, 66.2%)에 집중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커리어 사춘기가 찾아 온 이유를 묻자



(복수응답), '너무 낮은 연봉(연봉 인상이 낮아서)'이 49.8%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서'라는 답변은 35.3%로 2위에 올랐고 '너무 많은 업무량(27.0%)', '고용 불안정성(25.1%)' 등의 답변 순으로 나타났다.

커리어 사춘기를 경험한 직장인 중 69.4%는 '극복하지 못해 주기적으로 고민

한다'고 답했고, '극복했다'는 답변은 30.6%였다. 커리어 사춘기를 극복한 노하우로는 '이직, 창업 준비(29.9%)', '회사 생활 이외에 취미활동에 매진(29.5%)', '업무에 더욱 집중(28.2%)', '연봉 협상, 직무 재배치 등 해결책 마련(23.5%)', '친구, 지인 등과 상담(23.2%)' 등으로 다양했다.

/한용수 기자

## 국내 대학 교육시스템, 개도국 이정표 된다

스리랑카서 4년제 간호대 개교 등

국내 대학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이 개발도상국 대학 교육을 혁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성과로 스리랑카에서 4년제 간호대학이 개교하고 미얀마에서 유전자원센터가 개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은 국내 대학의 우수한 고등교육시스템을 개발도상국 대학에 현지에서 수요가 큰 분야 학과를 개설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이화여대와 포항공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3개 대학이 13개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선정

대학은 연간 4억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아 4년간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인제대는 스리랑카 콜롬보대학의 기존 3년제 과정의 간호대학을 4년제로 개편했다.

특히 스리랑카 정부는 현지 국립대 18개교 내 간호학제를 모두 4년제로 승격시킬 방침이어서, 한국의 우수한 간호 교육시스템이 세계에 알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 다곤대학의 경우에는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전북대의 지원을 받아 식물학과 교육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며, 다곤대학 내에 유전자원센터를 설립하는 성과를 냈다. 유전자원센터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연구·산업계의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 기자

## 공무원·영어시험 준비도 AI가 맡는다

에스티유니타스, '스텔라' 선보

공무원시험과 영어시험 준비에도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에듀테크 기업 에스티유니타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교육 서비스 '스텔라(Stella)'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스텔라 서비스는 에스티유니타스의 지식 공유 플랫폼 커넥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와 영단기에 각각 시범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스텔라는 그동안 공단기가 축적해온 회원 학습이력 30만 건, 공무원 시험 문항 6만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했고, 여기에 학생의 현재 학습상태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틀릴 것으로 예측되는 문항과 유형을 집중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별 학습 수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틀린 문제를 정리한 오답노트도 스텔라가 대신 작성해주기 때문에 스텔라를 통해 공시생의 긴 시험 준비 기간과 방대한 학습량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에스티유니타스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토익 데이터를 스스로 인지하고 학습해 다음 시험에 출제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 유형을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기능도 갖췄다. 영단기가 개발하고 축적해온 수만 건에 달하는 토익 문항과 에스티유니타스 어학연구소 직원들이 실제 치른 토익시험을 분석한 토익 트렌드와 출제 유형 등의 빅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방대한 양의 학습량과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티유니타스 윤성혁 대표는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통해 스텔라를 인공지능 교육 시대의 선두주자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박종철 열사 31주기 맞아 동판 설치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인권 탄압의 현장임을 알리는 바다 동판이 설치됐다. 서울시가 박종철 열사의 31주기(14일)를 맞아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인권현장 바다동판을 만들어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 언어학과 2학년이던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하다 숨을 거뒀다. 당시 경찰은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며 박 열사의 고문 은폐를 시도했다가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을 건드렸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에 있는 대공분실은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군사독재 시절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끌려가 강도 높은 고문을 당한 곳이다. 이후 경찰은 2005년부터 남영동 청사에 '박종철 기념전시실'을 열고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공분실 건물 외부 출입구 근처 바다에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역삼각형 형태(가로·세로 35cm)로 동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 당시 1288명의 학생이 구속 당한 '10·28 건대항쟁 자리' ▲민주인사 등에게 고문수사를 했던 국군보안사 서빙고분실 '빙고호텔 터' 등 5곳에도 인권현장 바다동판 설치를 마쳤다.

/이범중 기자 joker@